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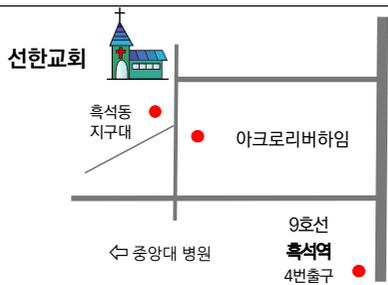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진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응,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8절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75장 (통일찬송가 47장)
	교 독 문	교독문 41 (시편 97편)
	찬 양 과 경 배	183장 (통일찬송가 172장)
	대 표 기 도	조계승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13장 1~17절
	설 교	씨부리는 자의 비유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지혜가 짓는 집 (잠9:1-18)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직회

오늘 예배후 서면 제직회가 있습니다.

[안건] 특별위원회 조직 건

인사위원장: 조계승 장로 / 예결산위원장: 박대수집사

성탄준비위원장: 유초등부부장(백영미집사)

행정감사:김재준 집사 / 회계감사: 이성범집사

2.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11시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대상1장~대하26장]

4. 경건서적읽기 : 부서별로 추천도서중 1권 선택 독서 후 나눔 (기간: 11월 15일 까지)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4. 수험생을 위한 기도

올해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손진강, 손가은, 홍성호 / 수능일: 2020년 12월 3일

1.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과 담대함과 체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2. 수시모집 지원후 면접과 실기 준비중에 있는데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3. 어려움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되도록

5.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열방이 위상송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믿음의 분이 되는 삶을 살기를

찬송 : '나 같은 죄인까지도' 547장

본문 : 마가복음 12장 10~11절

말씀 :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이어서 시편에 나오는 돌의 비유를 인용합니다. 버린 돌과 머릿돌의 비유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10절) 똑같은 돌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쓸모없다고 내버려서 '버린 돌'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주워서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머릿돌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돌을 가리킵니다. 고대 건축물에서 입구를 무지개 모양으로 쌓았습니다. 양쪽에서 돌을 쌓아 올리다가 맨 꼭대기에 마지막 돌을 끼워 넣으면 견고한 문이 완성됩니다. 이 마지막 돌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사람들이 내버린 돌을 가지고 가장 요긴한 머릿돌로 썼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눈먼 이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여인들, 창기들, 세리들, 사마리아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죄다 버린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람들의 눈에도 놀랍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11절)

조선 시대 학자인 윤두서가 지은 시조가 있습니다. '옥에 흠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오는 이 가는 이 흠이라 하는구나/ 두어라 알 이 있을 것이니 흠인 듯이 있거라.'

흠이 묻어 길가에 버려진 옥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사람들은 그 옥을 돌인 줄 알고 밟고 지나다녔지만, 하나님은 그 옥을 꺼내 갈고 닦아 빛이 나게 하셨습니다.

조선 3대 야담집 중 하나인 '청구야담'에 '무기당(無棄堂)'이 나옵니다. '버릴 것이 없는 창고'라는 뜻입니다. 어떤 명의를 우연히 임금의 병을 고치게 되었는데 유일한 비방이 감쪽지를 달인 약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는 4월, 어디서도 감쪽지를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때마침 어떤 선비가 한 칸 집을 지어서 '무기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들을 죄다 모아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기당에는 다 닳은 빗자루나 깨진 바가지, 이빨 빠진 그릇, 찌그러진 갓, 곰팡대 부러진 것, 몽당뿔 등 별의별 물건을 다 쌓아놓았습니다. 거기서 감쪽지 한 말을 구해다가 약을 달여서 임금의 병을 깨끗이 고쳐 주었습니다. '무기당'이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없을 무(無)'에 '버릴 기(棄)',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창고에 이런 이름을 짓고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들을 모아놓은 선비는 대체 어떤 분일까요.

무기당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에 버릴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머릿돌이니까요. 예배당은 무기당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씨부리는 자의 비유 (마13:1-17)

서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 가운데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1.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

- (1) 허락된자: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여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11절; 막4:33,34)
- (2) 허락되지 않은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13-15절)
- (3)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16절)
- (4) 씨부리는 자의 비유(1-9)는 성장하는 하나님나라 원리를 설명함:

본론

천국백성은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19-23절).

2. 교훈

- (1) 예수님의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2) 내 마음의 밭은 옥토와 같은가?
- (3) 하나님 말씀의 씨가 잘 자라도록 인내하고 있는가?

결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심겨져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같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계승 장로

유신웅 장로

매일 Q.T.	데살로니가의 복음 전파 날짜 : 10월 26일
찬양	찬송가 379장 내 갈길 멀고 밤은 깊는데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1-9
	<p>편지는 관계성을 토대로 하는 글쓰기의 양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서로가 쌓아온 시간과 이야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써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안부와 소식을 담은 편지를 주고받을 때, 쓰는 이나 읽는 이들은 모두 그들이 함께 했던 시간을 회상하게 됩니다. 편지를 쓰고 읽으며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 지난 기억이 또렷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한 지난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편지를 쓰고 읽으며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 이제까지 몰랐던 서로의 깊은 마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는 마게도냐 지방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첫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중 하나였던 데살로니가에는 로마로 통하는 '이그나시아 대로'가 지나고 있었고, 유동인구가 많았던 도시에는 유대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그 도시에, 다양한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함께 머물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히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3절)이라는 소문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들이 함께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자 합니다.</p>
묵상질문	나에게 복음이 이르게 된 과정은 어떠한가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찬양과 기도	너 성결키 위해 (새 420)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서 조지아라는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인 찰리에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한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실험 이름은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월터 미셸 박사는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달콤한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참은 사람에게 상으로 한 개의 마시멜로를 더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결과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 중 3분의 1은 15분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고, 나머지 3분의 2의 아이들은 끝까지 기다린 보상으로 마시멜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놀라운 비밀이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밝혀집니다. 10여 년 뒤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추적해 이들을 조사했는데,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와 사회성, 집중력을 지녔고 스트레스를 다룰 줄 아는 정신력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인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는 많은 유혹이 일상 곳곳에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 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요즘 나를 유혹하는 최대의 적은 무엇인가요? 유혹을 이겨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p>
말씀 나누기	데살로니가전서 4:1~12
묵상포인트	<p>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죄악 된 본성을 거슬러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에 힘쓸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배려와 사랑으로 대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p>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실천하라고 권면하나요? (3~5절)
적용하기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거룩한 일상을 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제 몸과 마음, 말과 행실이 더욱 거룩해지도록 도우소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550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13-18
	<p>바울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형제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적 이해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을 당하셨으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오염된 육체를 벗어버리는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지 수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소망 가운데 기꺼이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p> <p>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게 되는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날에는 먼저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곳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이 땅에서 핍박 중에도 주를 믿는 근거가 됩니다.</p> <p>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과 재림 신앙은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나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 소망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소망을 함께 소유한 자들로서 서로를 위로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p>
묵상질문	부활의 소망이 내 거룩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10-20
	<p>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상합니다. 그것은 사도로써의 권위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쁨과 같이” 그들을 돌보는 삶이었습니다(7절).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9절). 거룩하고 옹고 흠없이 행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는 삶이었습니다(11절).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은 결코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권위를 포기하는 삶과 폐를 끼치지 않고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삶과 날마다 자신을 바로 세워 권면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죄인앞에 무릎꿇으심으로 자기버림을 실천하신 예수님 처럼 자기를 버림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p> <p>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이르고, 자기버림의 삶을 통해 전해집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교회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들에게 이룬 복음과 자기버림을 실천했던 이들의 삶을 보았고, 이러한 회상은 데살로니가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외침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든든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우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이룬 것 또한 하나님을 힘입어서이며, 누군가의 자기 버림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이 아침에 나에게 복음이 어떻게 이르게 되었으며, 자기버림의 삶으로 내게 복음을 전해준 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짧지 않으신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복음 받은자로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p>
묵상질문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처럼 나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1-13
	<p>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주님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이에게 늘 마음을 두고 있고, 마음이 끊임없이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듯이 주님은 한 순간도 지나침 없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와 말씀과 성령님으로 복음의 생명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영적 비밀이며 삶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p> <p>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미 고난과 박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사도는 이런 사실을 디모데후서1:8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마치 삶의 명제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축복의 영성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외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속이는 거짓의 시대에 다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대해 온전한 신앙적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p> <p>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과 풍요와 축복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철저하게 축복 이기주의에 빠져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신앙이 인간과 역사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화석화된 죽은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건물 안에 갇힌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신앙은 마침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설의 비밀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p>
묵상질문	믿음의 인내와 순종이 무가치 하다고 여겨진 적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1-12
	<p>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성윤리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 만 아니라 성적인 만족을 위해 탈선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아내까지도 넘보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내는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돌보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되었고, 이혼은 기분대로 행해졌으며, 혼외관계를 갖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적인 욕망이 금지되기는커녕 용인되고 조장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류 속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적 방종에 동참하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p> <p>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문란하게 제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p> <p>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근거입니다.</p> <p>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고합니다. 당시 주의 날, 곧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 일상의 일을 포기하고 생업을 내려놓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하며 무작정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그런 그릇된 신앙풍조에 동요하지 말고 하던 일에 전념하기를 권유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빈축을 살 뿐 만 아니라 결국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내 물리게 될 것이 뻔 하기 때문이었습니다.</p>
묵상질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